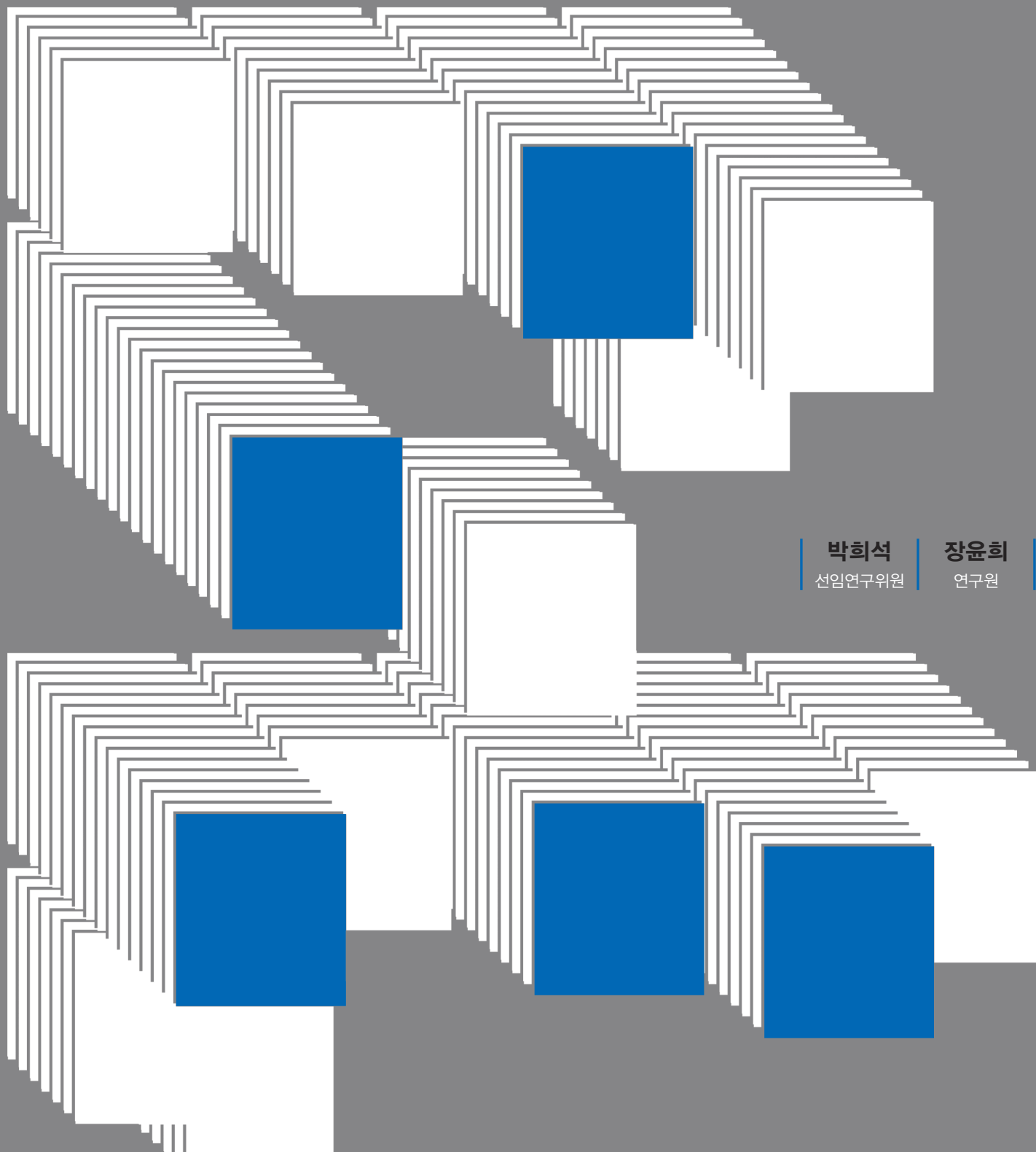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442호
2026.4.6.



박희석
선임연구위원

장윤희
연구원



2026. 4. 6.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42호

서울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

박희석 선임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i.re.kr

장윤희 연구원
02-2149-1280
yhjang80@si.re.kr

요약	3
I. 서울경제의 현안 이슈와 구조변화 진단	4
II. 서울의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추정	11
III. 노동시장 분석	14
IV. 정책제언	18

요약

최근 10년간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가 누적되며 서울의 경제편더멘털과 성장동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구조변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전국 대비 서울이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고, 저출생 및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모두 하락하는 서울

최근 10년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8%로 두 자리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로 성장동력이 약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약 5% 수준에서 2020년 이후 평균 0.6%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TFP) 평균이 0.023으로 전국 7위에 머물며 경기와 인천보다 낮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산업 양극화, 플랫폼 중심 시장 재편, 소득불평등 확대, 가계부채 증가,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인구·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서울경제의 성장률 둔화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서울경제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GRDP 증가율은 2010년대 이후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종소비 지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3.1%로 낮아지고, 총자본형성 증가율도 2020년대 들어 1% 수준까지 하락했다. 산업구조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은 감소하고,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약 45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로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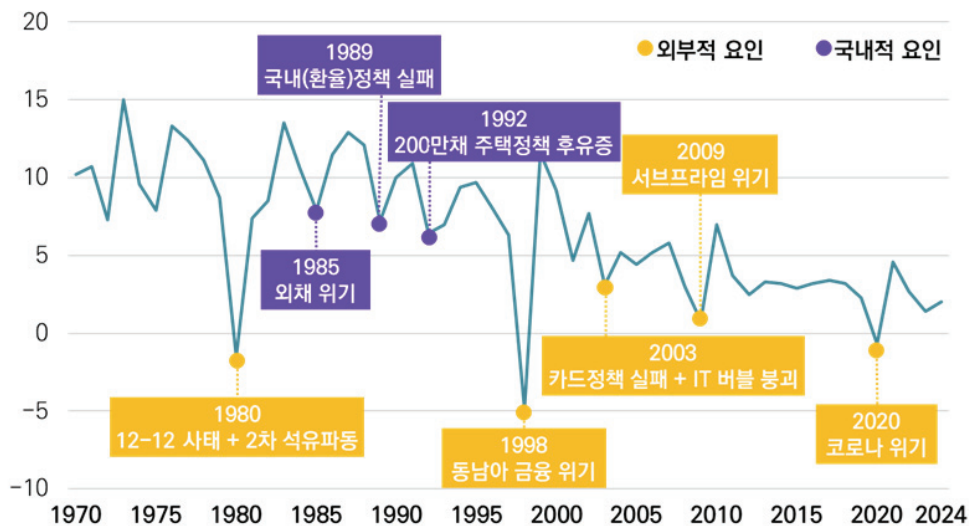
저출생·고령화로 감소하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국 기준 향후 10년 뒤에는 2% 후반, 20년 뒤에는 1% 중반 수준의 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50세 이상 취업자는 약 347만 명 증가하며 주요 노동 공급원으로 부상하였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고, 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병행하는 것이 성장 둔화와 인력난을 완화하는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I. 서울경제의 현안 이슈와 구조변화 진단

I 경제위기는 경제편더멘털을 악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야기

경제위기와 경제성장률 추이

- 최근 10년간(2013~2022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전국 평균보다 0.4%p를 하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
 - 서울의 성장률은 1987년 13.8%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2%대 성장에 진입
 - 2026년 전국 성장률이 1%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경제위기 이후 누적된 구조적 변화 요인으로 서울의 경제편더멘털과 성장동력은 악화
 - 특히, 전국 성장률이 외환위기(1998년, -4.4%), 금융위기(2009년, 1.5%), 코로나19 감염병 위기(2020년, -0.5%) 등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서울의 성장률 역시 전국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혹은 1% 성장률을 기록
 - 이와 함께 대내·외적인 충격은 서울의 경제편더멘털을 악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구조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위기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며 구조적 변화 가속 및 장기화, 내·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경제위기가 경제 전반에 영향
 - 그 외 요인으로 경제 규모 확대와 투입요소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과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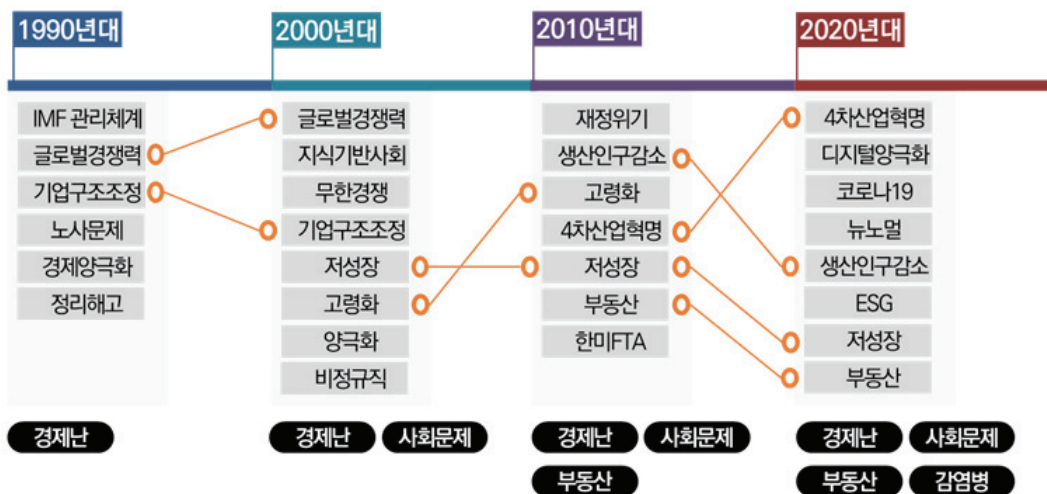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대내외 경제위기(1970~2024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시대별 주요 경제 키워드

-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기사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 기반 키워드 트렌드를 기초로 분석
 - 200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잠재성장률’ 관련 연도별 키워드 트렌드 및 연관어를 분석
-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별로 대표적인 경제 키워드를 선별
 - 1990~2000년대는 글로벌경쟁력 및 기업구조조정이 대표적 경제 키워드, 2000~2010년대는 저성장 및 고령화, 생산인구감소, 2010~2020년대는 4차산업혁명, 부동산 등
- 경제펀더멘털 약화 및 구조적 문제 복합화
 - 1990년대는 경제난, 2000년대는 경제난 및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2010년대는 경제난과 사회문제에 더해 부동산이, 2020년대는 감염병이 추가



[그림 2] 시대별 대표적인 경제 키워드(1990~202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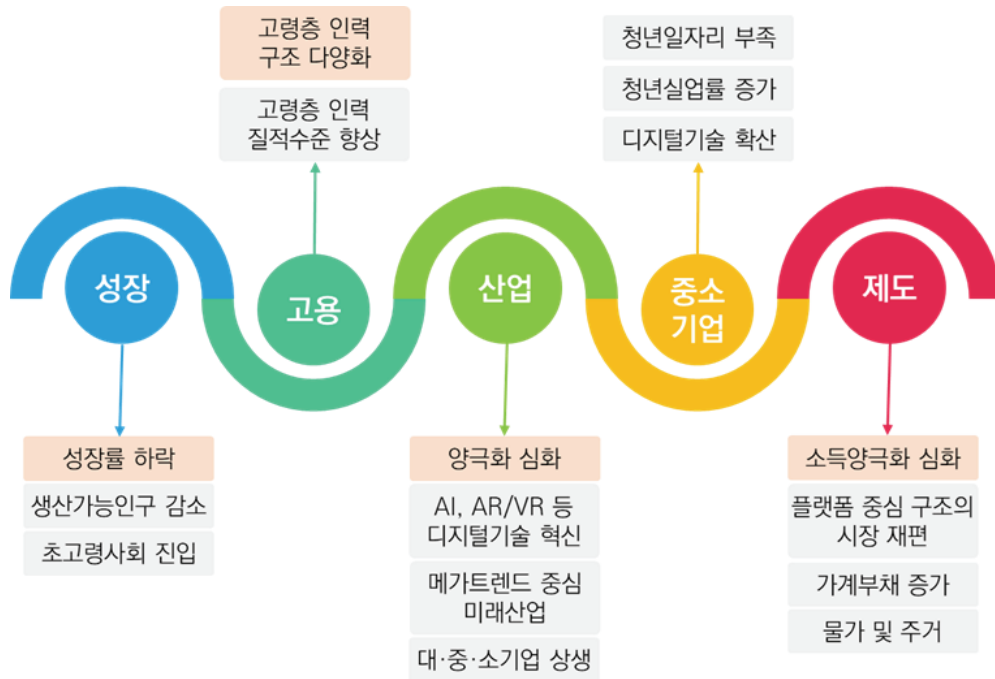
주1: 핵심어로 본 시대상의 변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새국어생활 제25권 제4호

주2: 한국경제 키워드 2000년대는 ‘글로벌 경쟁력’, 동아일보

서울경제의 부문별 현안 이슈

- 경제 주요 이슈로 파악한 서울경제의 주요 현안은 성장, 고용, 산업, 중소기업, 제도 등
 - 성장 관련 주요 현안은 성장률 하락,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 고용 부문 고령층 인력 구조의 다양화, 고령층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등
 - 산업 부문은 양극화 심화, AI, AR/VR 등의 디지털기술 혁신, 메가트렌드 중심의 미래산업, 대·중·소 기업 상생 등
 - 중소기업 부문은 청년일자리 부족, 청년실업률 증가, 디지털기술 확산 등

- 제도 부문은 소득양극화 심화, 플랫폼 중심의 구조로 시장 재편, 가계부채 증가, 물가 및 주거 등



[그림 3] 서울경제 부문별 주요 현안

I 구조적 변화는 저성장기조 장기화, 양극화, 생산인구 감소를 유발

비교우위 상실 및 저성장 기조 장기화

- 서울의 평균 성장률(2017~2023년)은 2.4%로 17개 시·도 중 9위
 - 인구고령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저하로 성장동력 감소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 지속적인 성장이 큰 과제로 대두
-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으로 장기 성장률을 추정하면,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
 -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평균 성장률이 3.4%였으나, 2013~2022년은 2.5%로 하락하고, 2023년 이후로는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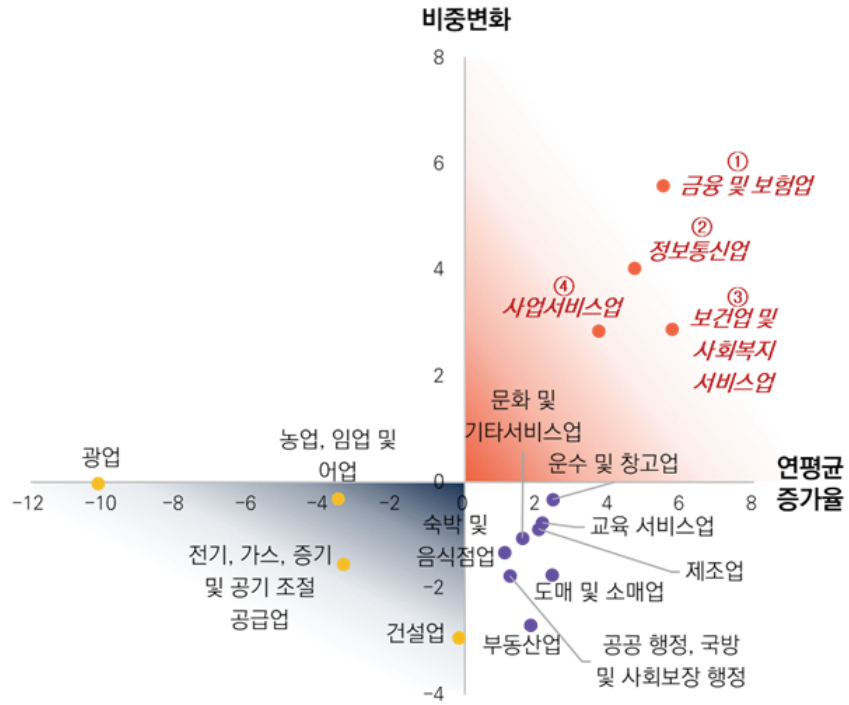
[그림 4]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평균 성장률 추이(2017~2023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기준년 2020년)

업종별 성장 양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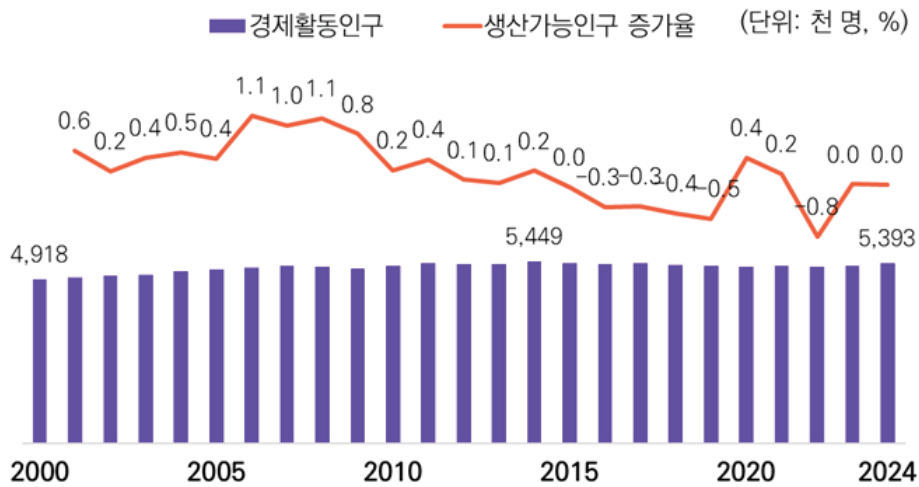
- 서울시 산업별 성장 양극화 심화 및 주요 부문 성장기여도 저조
 - 지역내총생산 기준 연평균 증가율도 높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었으며, ‘정보통신업’ 역시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조사
 - 그 외에 성장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까지 4개 산업 정도
- 전체 산업의 지역내총생산은 2000~2005년간 연평균 증가율 3.8%에서 2020~2023년 2.4%로 크게 감소하며 저성장 기조 장기화
 - ‘금융 및 보험업’은 비중 확대를 통해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건설업’은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마이너스 성장

-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일련의 경제위기는 경제편더멘털에 영향을 주어 구조적 문제 심화로 성장잠재력 상실



[그림 5] 서울시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및 비중 분포(200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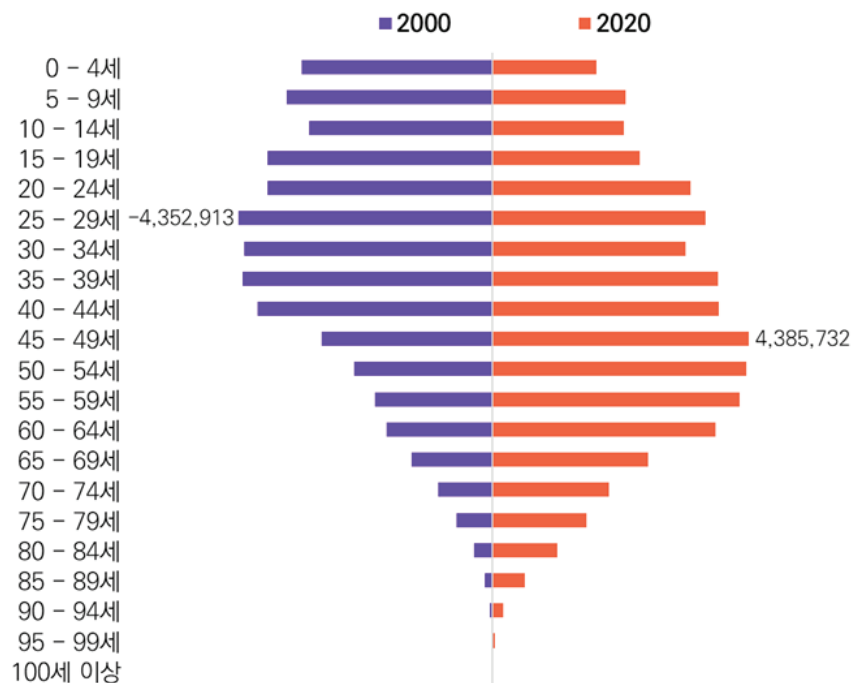
- 초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하락세 지속 및 총요소생산성(TFP) 하락으로 성장잠재력 큰 폭으로 저하
 -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5,449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 소폭 하락세에 진입



[그림 6]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및 증감률 추이(200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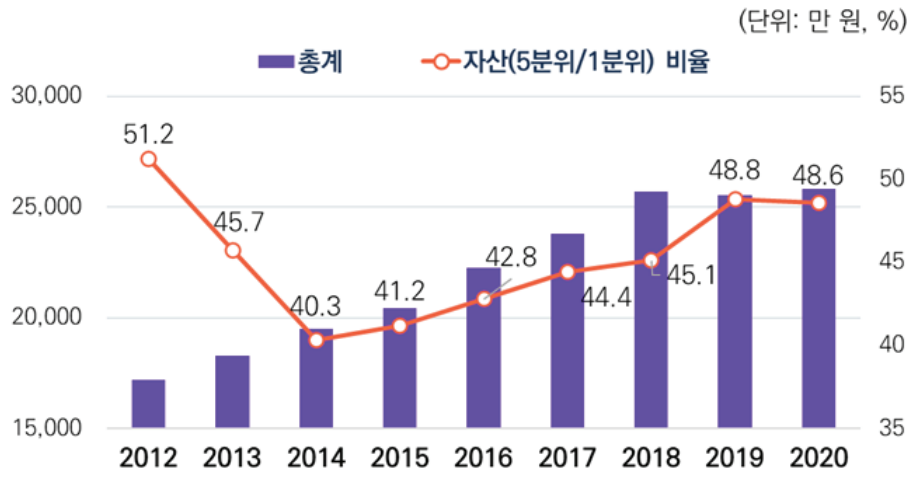
고령화 및 자산시장 양극화

- 전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 10세 미만은 680만여 명에 달했으나 2020년은 400만여 명으로 크게 감소
 -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48만여 명에서 2020년 189만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
- 2000년은 25~29세 인구가 43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0년에는 45~49세 인구가 439만여 명으로 가장 높게 조사
 - 2000년 20~30대 인구수가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 인구가 2020년 40~50대로 이동하며 전체적인 고령화가 진행



[그림 7] 전국 장래인구추계 비교(2000, 2020년)

- 순자산 총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 상태
 - 5분위/1분위 자산 비율은 2012~2014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9년까지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소득계층별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



[그림 8] 전국 순자산 및 자산 양극화 추이(201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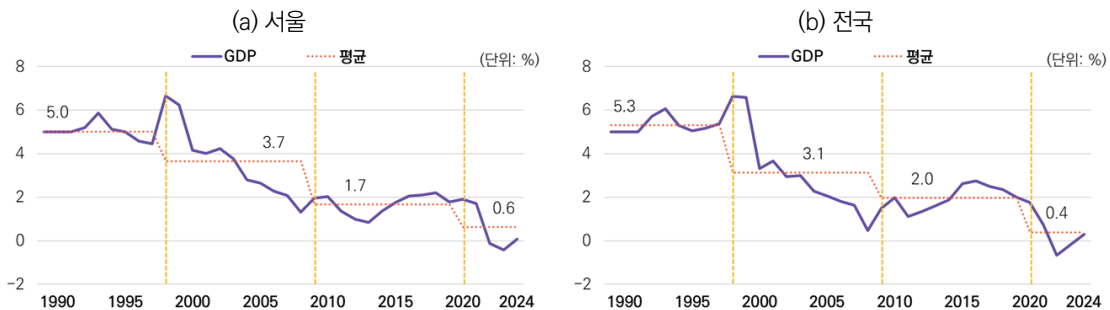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II. 서울의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추정

I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동력 약화, 저성장·고령화로 진입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후 지속 하락세였으나 최근 반등 경향

-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은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
 - 잠재성장률은 현재 경제가 실현가능한 성장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책 변수로 사용
 - 또한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치 및 성장경로 예측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 1990년 이후 서울시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1998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후 하락세에 돌입
 - 2010년대 평균 잠재성장률이 1%대에 들어선 후, 2020년 이후 0.6%에 불과
- 서울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 전국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
 - 2020년 이후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0.6%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은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반등



[그림 9] 서울과 전국의 잠재성장률 추이(1990~2024년)

총요소생산성으로 살펴본 서울의 생산성은 전국보다 저조한 추세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 TFP)은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총투입요소 단위당 산출물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중간재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설명할 수 없는 기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설명되지 않는 잔차(unexplained residual), 기술의 진보(technological progress) 등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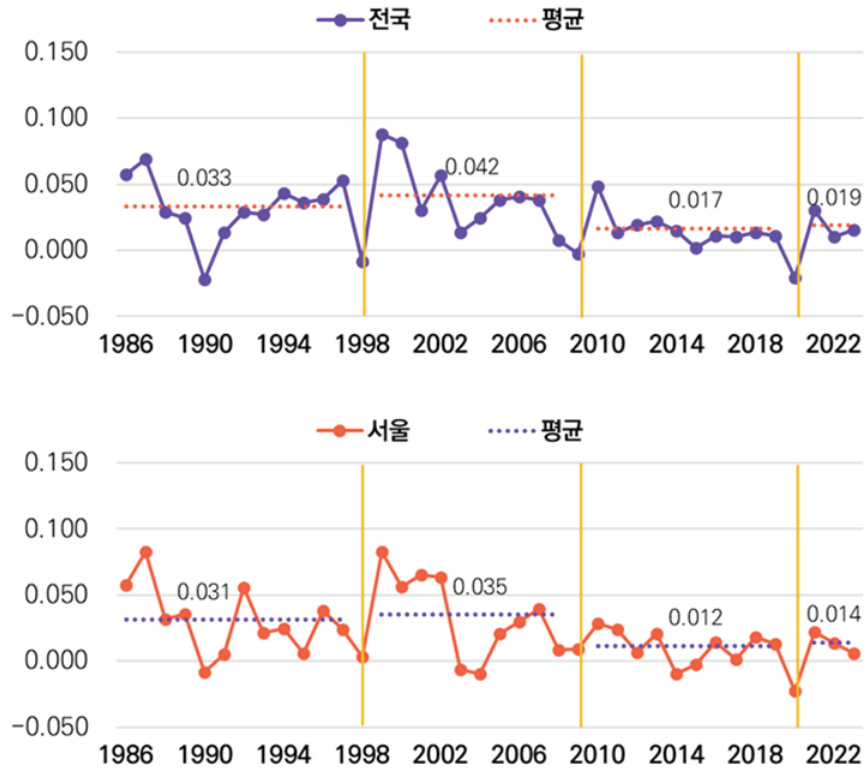
- 그러므로 총요소생산성 개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생산함수의 상향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은 순수한 의미의 기술 진보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중간재, 기술이 직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 이것은 과거의 성장패턴을 검토하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시도별 총요소생산성 추정치
 - 1986~2023년 중 연평균 총요소생산성은 전국 평균 0.027로 추계
 - 서울은 0.023으로 수도권에서 경기 0.028, 인천 0.023보다 낮은 7위로 추정
 - 전국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0.036)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충북(0.034), 충남(0.033) 순
 -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0.010), 울산(0.012)으로 추정



[그림 10] 시도별 총요소생산성 추정치(1986~2023년 평균)

- 전국과 서울,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 감소, 횡보 시기로 구분
-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IMF 직후인 1999년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98년으로 계산
 - 그 외에 1989년 금리인상 및 재정지출 축소 등의 긴축 정책이 시행된 후인 199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인 2009년에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
 - 2020년 코로나19 위기 후에도 마이너스(-)로 하락
-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다음 해에는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며 반등하는 모습

- 주요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평균치는 서울이 전국에 비해 떨어지는 추세
 - 서울의 1999~2008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평균치는 0.035로 전국(0.042)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로도 계속 저조한 것으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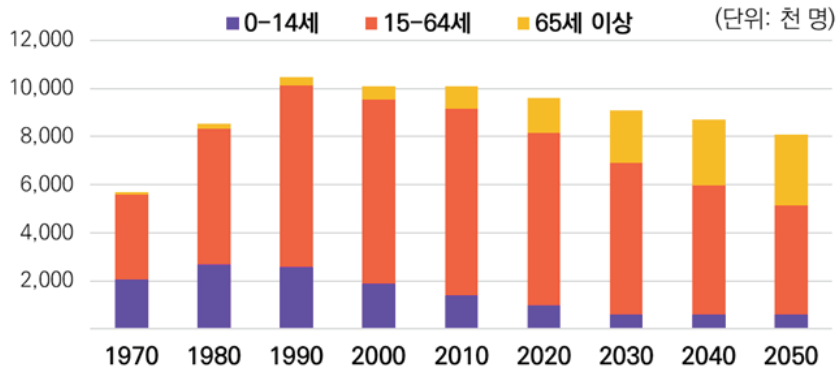
[그림 11] 전국 및 서울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Ⅲ. 노동시장 분석

Ⅰ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시장도 고령화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90년대 이후 지속적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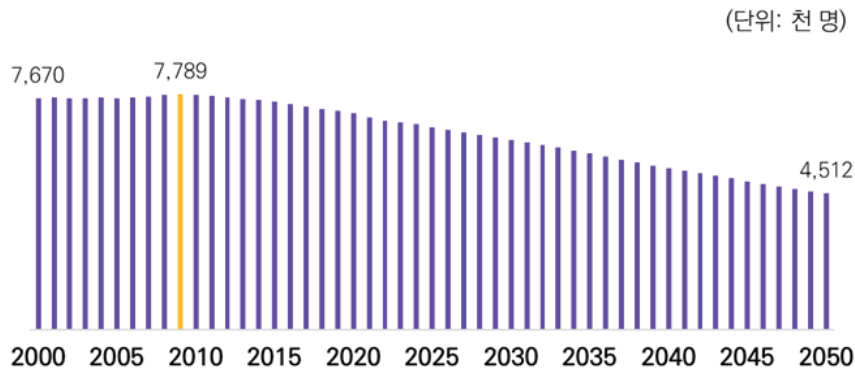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970년 569만여 명이었던 서울시 인구수는 1990년 천만 명을 넘는 등 1970년과 1990년 사이 크게 폭등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50년 81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
 - 전국의 인구수가 2020년 정점을 찍고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서울의 인구수는 전국보다 빠른 1990년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전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수 역시 전국은 2020년 이후로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2010년과 2020년 사이 크게 감소



[그림 12] 서울시 연령별 장래인구추계(1970~2050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4년 5월 공표)

- 서울시의 200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79만여 명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다 점차 하락 폭이 커지는 추세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50만 명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2년 700만 명 이하를 기록하였고, 2050년은 451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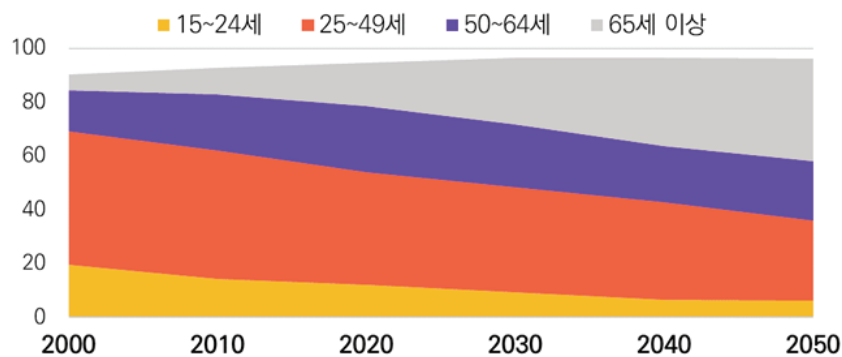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 생산가능인구 추이(2000~2050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4년 5월 공표)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 비중 줄고 50대 이상은 증가

-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5~49세로 2000년 기준 49.5%로 절반 가까이 차지
 -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은 42.0%를 기록하였고, 2050년은 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전국 25~49세 비중(24.1%)보다는 높은 수치
- 서울의 50~64세 비중은 2000년 기준 15.3%였으나, 2010년 20% 이상을 기록하였고 2020년 24.5%까지 증가
 -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50년도 22.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50년 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22.1%)과 비슷한 수준
- 15~24세는 2000년 기준 19.6%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20년 12.0%를 기록하였으며, 2050년은 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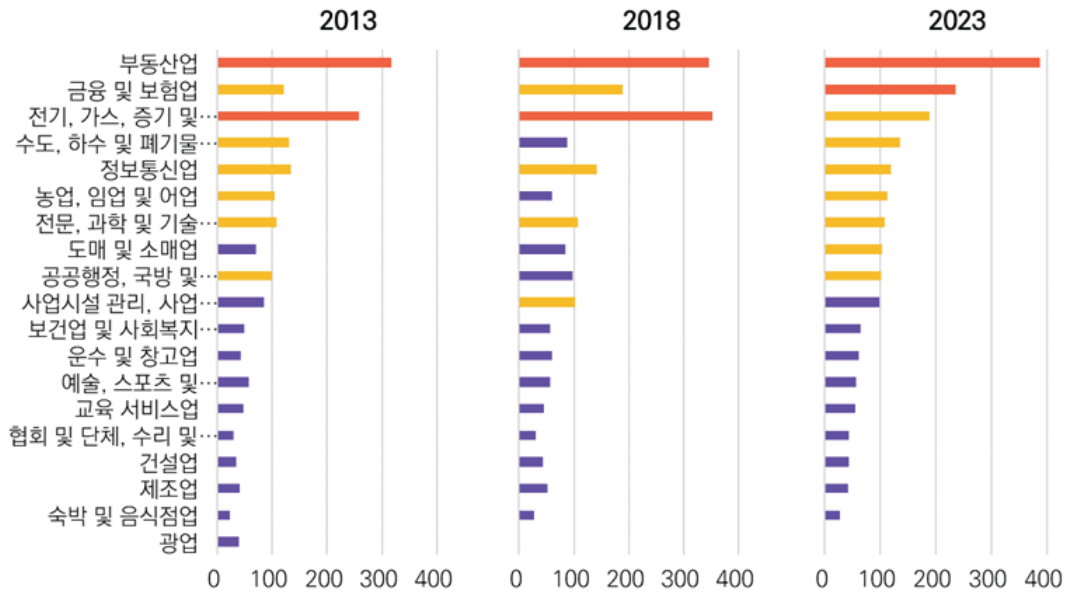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시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2000~2050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4년 5월 공표)

서울시 기준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과 '금융 및 보험업'

- 서울시 기준 2023년 가장 노동생산성(취업자 수 대비 GRDP 비율)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387.3)이며, 그다음은 '금융 및 보험업'(235.8)
 - 부동산업은 2013년도 316.8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2.2)이 부동산업(345.6)보다 소폭 높게 조사
 - '금융 및 보험업'은 2013년 120.7로 5위에 머물렀으나, 2018년 189.7로 3위, 2023년은 2위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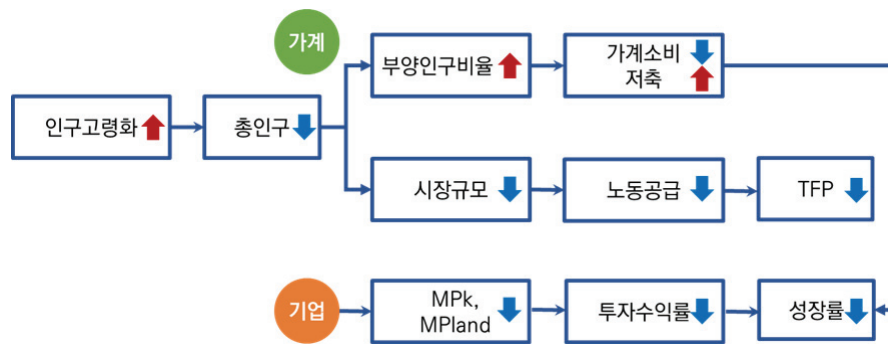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 산업 대분류별 노동생산성 추이(2013, 2018, 2023년)

주: 서울시 취업자 수는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하반기 기준

I 정책적 대응으로 생산성 저하 최소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비중 증가로 경기침체 확대

- 가계 부문에는 총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양인구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하는 만성적 경기침체가 발생
 -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부양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확대



[그림 16] 인구고령화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연구의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고령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55세 이상 노동자가 1% 증가할 시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0.3%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고령화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한 정책 및 대응을 통해 하락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 고령자 고용 확대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
 - 고령자 재교육, 숙련기술 유지 및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증대
 -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IV. 정책제언

I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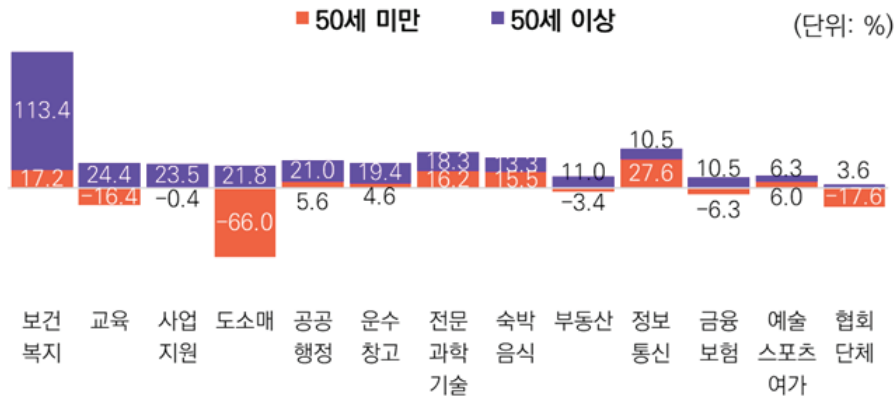
인구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은 차츰 저하될 전망

-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하락¹⁾
 - 성장회계모형 분석 결과, 기본모형 기준으로 전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 1.9%, 2016~2035년 0.4%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그 외 정년연장, OECD 수준으로 여성참가율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전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각각 상이하게 개선
 - 정년연장을 할 경우 2016~2025년 기간 중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2.3%, 2016~2035년은 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단기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2016~2035년 0.8%, 2036~2045년에는 0.7%의 실질성장을 유지
 -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시에도 유사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전망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국 고령층 취업자(50세 이상)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총 347.3만 명 증가
 - 고령층은 서비스업에서 297만 명, 제조업에서 50.3만 명 증가한 반면, 50세 미만 취업자는 같은 기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이 해당 산업에서 주요한 노동 공급원으로 부상
- 제조업 기술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주로 중위기술(37.3만 명)과 고위기술(8.1만 명) 분야에서 두드러진 증가세
 -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전자·컴퓨터·통신기기, 금속 산업 등에서 증가세가 커, 단순노무 직뿐 아니라 기술 기반 사업에서도 점차 역할 확대
-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인 보건·복지, 교육, 사업지원, 도소매 등에서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증가
 - 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에서는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 비교적 증가 폭이 컸던 반면, 금융·보험이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고령층 진입이 제한적인 수준

1) 안병권, 김기호, 육승환(2017),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림 17] 전국 서비스업 연령별 취업자 변동(2013~2023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 생산함수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5%p 상승할 경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0.09%p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고령층의 고용 확대는 성장률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 이러한 효과는 고령층의 노동이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지거나, 생산성 향상 없이 단순히 은퇴 시기만 늘어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고령인력의 활용으로 생산성 저하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고령층의 고용 확대는 성장률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 이러한 효과는 고령층의 노동이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지거나, 생산성 향상 없이 단순히 은퇴 시기만 늘어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용
 - 고령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정년연장,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글로벌 인재 유치
 - 고숙련 외국인 인재의 유입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
- 연구인력의 다양성 확대
 - 여성 연구인력의 비중을 높이고, 연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투자
- 공공과 민간 각 부문간 차별화된 접근
 - 인력고령화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응 활용

- 산업 간 융합과 청정기술 개발
 - 전기차, 바이오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을 통한 파급효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AI 기반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로 AI 도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에 기여

정책
리포트

제442호

서울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

발행인 오균

편집인 백선희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6년 4월 6일

디자인 박진범

인쇄·제본 세일포커스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